

# 브랜드에 나타나는 Check pattern의 역할

한지수\* · 양취경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클래식 ‘고전적, 싫증이 나지 않는’ 등의 뜻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스타일을 말하기도 한다. 현대 패션에서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 스타일을 의미하지만 아무리 전위적인 스타일도 시대가 지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클래식이 된다.

클래식은 모든 분야에 존재 할 수 있는 테마로 문화, 예술, 음악, 건축, 가구, 사진, 음식 등에 걸쳐 등장하며 최근 정통 클래식 외에 파격적인 이미지의 이단아들이 배출되어 지고 있다.

고전적인, 고상한, 전통적인, 보수적인, 고풍의, 중후한, 깊은 맛 등의 의미를 지닌 클래식은 격조감과 깊이감이 내재되어 전통적이고 윤리성을 존중하고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이미지이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Classic과 체크 패턴분석을 하자면 소재는 여성미가 강조된 시폰, 레이스 등 하늘 거리는 여름용 옷감과 트위드, 벨벳 등 무거운 질감이면서도, 여성스럽고 우아함이 가미된 섬유들이 빈티지 감각으로 인기가. 체크나 줄무늬에 비해 꽃무늬는 복고적이면서도 로맨틱, 엔틱한 클래식 느낌이 강한 아이템이다. 체크는 영국 패션의 강한 흐름과 함께 올 시즌 다시 패션 아이콘으로 등장하였다. 전통적인 체크에서 새로운 이미지의 체크에 이르기까지 클래식의 대표적인 패턴인 체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의 미학을 예술사조와 관련지어 볼때 수직 수평선은 자연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조형 요소로 신 조형주의에서 정의 하였고 인류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1747년 금지령에 의해 착용이 불법화 된 체크를 19세기에 들어와 조지 4세는 빅토리아 시대를 통해 사라진 씨족 문화의 문화와 전통의 상징인 타탄 체크를 원래대로 재현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그 기법 또한

많이 사라지고 난 뒤였다. 영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Aquascutum은 하우스 체크라고 불리우는 클럽체크는 예전엔 각 지방마다 독특한 무늬의 이름에서 차차 브랜드나 클럽 등에서 채택한 무늬로 브랜드의 로고와 함께 영국에서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아쿠아스큐텀은 3가지의 색상의 실이 블록체크나 건클럽 체크의 형태로 +자로 겹치게 한 것으로, 갈색과 남색이 베이지의 바탕위에 균일한 형태를 보이며 여러 가지 크기의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어 진다. 또 대표적인 브랜드인 1차 세계대전시 1901년 버버리는 영국 장교들을 위한 유니폼을 디자인한다. 기존 레인코트에 군인을 위한 몇 가지 디자인을 더한 제품이 바로 참호에서 입는 옷이란 뜻이 트렌치 코트이다. 버버리의 기병, 기사 로고도 이때 개발됐다. 체크는 1924년 트랜치 코트 안감으로 쓰이면서 첫 선을 보였다.

유행에 편승치 않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타일을 의미하는 클래식은 시간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적 개념을 넘어선 최고 수준의 고상한, 단아한, 전통적인 스타일을 의미한다. 체크는 전통적인 이미지 뿐 아니라 신 조형 주의와 옹 아트라는 예술 사조에서의 한 장르와 1980년대 이후 복식에 대두 되기 시작한 민속적 이미지에서 다양한 작품과 여러 종류의 무늬로 합성되어 새로운 패턴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디자인 등으로 나열 되어 질 수 있다.

국내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도 발굴 되고 개발 되어 클래식 의상처럼 시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패션사를 통해 유행했던 스타일을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 할때 유행을 쉽게 리드 할 수 있다. 시대를 리드 할 수 있는 감각과 소비자가 원하는 특징을 잘 매칭한다면 국내의 브랜드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며 장수 할 수 있을 것이다.